

#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Attachment and Autonomy  
as Related to Young Adults' Marital Satisfactio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과  
강사 유은희  
부교수 박성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Lecturer: Eun Hee Yoo

Associate Professor: Seoung Yun Park

## 목 차

- |                   |              |
|-------------------|--------------|
| I. 서론             | 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의 모형과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children's perceived interaction pattern with their parents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e subjects are a total of 646 male and female who have been married for 3 years or less, living in Seoul, and whose fathers or mothers are still alive.

The questionnaire, including of attachment, autonomy, marital satisfaction scales, are distributed to collect the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Intimate-Dependent type is 31% each in relation to fathers and mothers. Distant-Independent type is 30% in relation to fathers, 27% in relation to mothers. Balanced type is 21% in relation to fathers, 23% in relation to mothers. Undeveloped type is 18% in relation to fathers, 19% in relation to mothers.

2. there is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ental sex and adult children's sex as related

\*본고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부분적으로 발췌, 요약한 것임

to attachment levels, autonomy levels.

3.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ttachment-autonomy patterns as related to adult children's marital satisfaction.

4. Attachment and autonomy in relation to fathers and attachment in relation to mothers affect sons' marital satisfaction positively. Attachment in relation to fathers and mothers affect positively to daughters' marital satisfaction.

## I. 서 론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관계이다. Erikson(1986)을 비롯한 발달심리학자들은 청년기를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으로부터 벗어나는 심리적 이유기로 보고 있으며, 자녀의 결혼과 함께 자녀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ay, Williamson, & Malone 1986). 특히 결혼초기에 있는 성인자녀가 본가에 대한 충성심에 지나치게 말착되어 있으면 자신이 이룬 가족(family of procreation)에 대한 정체감 형성이 지연되거나 약화되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Duvall, 1978). 그러나 한국가족의 가족집단적 특성과 효사상은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하는데 억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혼자녀와 부모관계에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관이 보다 많이 내면화되어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독립성 보다는 순종을 요구하고 아들이 결혼하여 이룬 가족을 독립된 가족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 가족의 연장자로 생각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나 성인자녀는 부부중심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혼자녀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이 부모가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이정우, 1973),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 및 결혼갈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친, 인척관계가 결혼생활과 유의적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어(최규린, 1987) 인척간의 갈등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할때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국가족에서 자녀의 결혼생활은 부모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부부의 결혼관계 연구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도 포함시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는 대부분이 부부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자녀-부모관계와 부부관계를 연결시켜 본 연구는 매우 드물며 기존의 연구 내용도 단지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서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분야 지식의 한계가 되고 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는 발달 과정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은 애착과 자율성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Sullivan & Sullivan, 1984), 가족체계이론가들은 가족체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Bowen, 1978; Minuchin, 1974)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 연구에 애착과 자율성 발달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성인자녀-부모 관계가 자녀의 결혼생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ipp & Harmon, 1987).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 및 자율성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애착과 자율성 발달을 결혼만족과 관련지은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발달관계에 있는 성인 자녀와 부모관계를 중심으로 애착 및 자율성의 발달을 연구하며, 성인 자녀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결혼초기에 있는 성인자녀의 애착, 자율성 발달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2) 부모 자녀간의 애착, 자율성은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각기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는가? 3) 부와 모에게서 경험되고 있는 애착과 자

율성은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주며 또 이런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 4) 결혼만족도에는 정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요인들도 배경변수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 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교육, 소득, 연령, 가족구조, 출생서열, 자녀유무 등의 여러 변인들이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A. 애착 및 자율성 발달

#### 1. 애착의 발달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애착대상)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있는 정서적 유대이다(Ainsworth, 1979). Bowlby(1969)에 의하면 유아가 양육자와 근접하고자 하는 애착행동은 양육자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며, 유아기의 안정감은 유아가 필요시 애착대상에게 언제나 근접해 갈 수 있고, 애착대상이 자신의 요구에 언제나 반응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애착관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주로 관심을 보였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애착관계가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owlby, 1969; Wynne, 1984).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애착관계에서의 안정감이라는 심리적 구성이 지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안정된 애착유형의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를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였고(Kenny, 1987), 애착감정은 복지감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지만 (Greenberg et al. 1983) 부모에게 근접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의 빈도는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이는 청년기 및 성인기에서는 근접행동 그 자체 보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 2. 자율성의 발달

자율성은 건강하고 성숙된 인성 발달의 한 특성으로서 자율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전생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randen, 1983).

Blos(1978)는 개별화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을 발달 시켰다. 개별화란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관계적 맥락(relational context)에서부터 자신을 분리되고 구분되는 존재로 지각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발달시켜가는 성숙의 한 과정이며 자율성은 개별화 과정의 산물로서 발달된다. Blos의 개별화 과정에는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개념의 발달, 자아의지의 증대, 유아기적인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의 인지적 재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Greenberger(1984)는 행동 자율성을 사회심리적 성숙의 한 지표로 제시하였다. 행동자율성은 정서적 자율성과는 달리 개인의 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행동자율성의 주된 요소는 행동과 의사결정의 자아주체성(self-reliance)이다. 자아주체성이란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통제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 개념은 내적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 자기주장, 독립성의 속성과 비슷하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Douvan & Adelson, 1966; Hoffman, 1984; Steinberg, 1985) 자율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율성 발달은 개인의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율성의 발달 수준도 변화한다고 한다. White와 Speisman(1985)은 성숙된 성인자녀는 부모와 개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와 친밀하고 상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자신의 다른 점을 구분하여 수용,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자율성이 성숙된 성인자녀-부모관계를 구성하는 필수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3.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른 애착, 자율성 발달

성(gender)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의 정서적 관계를 발달시키는데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Chodorow(1978)는 분리-개별화 과정이 성역할 정체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므로써 자녀의

애착, 자율성 발달에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통적 성 역할의 특성에서 남성성은 자율성(분리), 여성성은 애착으로 정의되어지므로(Chodorow, 1978) 후일 성인의 성역할 정체감에서 여성은 분리에 불안하고 남성은 정서적 유대의 발달에 불안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Chodorow의 이론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불일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학생과(Leo, 1988)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Frank et al, 1988) 연구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율성은 많으나 정서적 유대 정도는 적었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율성이 오히려 더 높았고(Steinberg & Silverberg, 1986) 뉴질랜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애착과 자율성 모두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다(Kroger, 1985). 이런 불일치된 결과들은 자녀의 애착, 자율성 발달에 성역할 특성에 의해 발달단계나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한편 가족원간의 정서적관계는 부모의 성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중심점이 되어 남녀 모두 부모보다 모를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김재은, 1974; Shannon, 1987) 이런현상은 서구가족과 한국가족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또한 자녀의 결혼과 부모됨이 부모 자녀 관계를 변화 시키는데도 역시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Lurie, 1974). 모녀관계에서 딸의 결혼과 부모됨은 자녀에게 성인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해주고 모, 녀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라는 동료 의식을 증대시키어 친밀감이 증대되고 부모라는 범주에서 보다는 하나의 분리된 인격체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Fisher, 1981; Troll & Smith, 1976).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결혼이나 부모됨이 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Frank 등(1988)과 White 등(1983)은 남성의 결혼은 모와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고 박성연(1988)의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 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모에 대한 애착이 낮게 나타나 적어도 남성의 경우 결혼 그 자체는 부모에 대한 유대를 증대시키지는 못한다고 보겠다.

이와같이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과정에서 자녀의 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은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있어서도 부, 모로부터의 분리가 남녀에게 각기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B. 애착-자율성의 발달과 적응

모든 인간사회에서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서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애착이론에서는 애착은 어린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근원적인 신뢰감, 자신감을 발달시켜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며(Ainsworth, 1979),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은 자율성 발달이 자아정체감 발달의 중요 요소로서 청년과 성인의 직장생활 및 애정관계의 성공적인 적응에 중요 역할을 한다고 각기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과 자율성의 발달이 상호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심리적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 지려면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발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Hill & Holmbeck, 1986; Grotevant, 1983). 즉 심리적, 또는 물리적 분리와 정서적 유대와의 관계를 연구하기위해 기숙사생활을 하고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적고 무관심한 집단과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신뢰도가 높은 두 집단 모두에서 자녀의 독립성이 높았다(윤승경, 1988). 또한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를 정서적 단절의 의미로 생각했을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정도는 높았으나 심리적 복지감은 낮았지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정서적 유대정도가 모두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의 적응도 가장 높았다(Moore, 1987). 이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즉, 독립성이 양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부모의 무관심과 소외에서 부터 발달된 독립성과 부모자녀간의 상호 신뢰 속에서 발달된 독립성이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Campbell 등(1984)과 Marcia(1980)는 애착이 낮으며 자율성도 낮은 대학생의 자아발달 수준이 가장 낮는데 비해 애착, 자율성 발달 수준이 모두 발달된 대학생이 자아정체감의 발달 수준도 가

장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Lewis(1986)는 적응력이 높은 가족에서의 상호작용은 친밀도와 개별화가 모두 높았으며 만성적으로 갈등을 겪고있는 가족에서는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미발달 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건강한 사회정서적 적응에 애착과 자율성의 균형된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 C. 성인자녀-부모관계와 결혼만족도

결혼적응이나 결혼갈등 및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친, 인척관계의 적응이 결혼생활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성인자녀-부모 관계가 부부간의 결혼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척관계의 적응은 특히 결혼 초기에 어려우며(Lee, 1987) 부계가족제도가 발달한 한국가족에서 인척 간의 갈등은 주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고부갈등의 주된 원인을 보면 가사주도권의 다툼이나 상호 독립된 영역이 존중되지 않고 있는 것(고정자, 1987), 기혼 아들에 대한 시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정서적 밀착, 아들 가족에 대한 지나친 간섭(Lee, 1987) 등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녀가족의 부모에 대한 자율성 증대 요구에 따른 갈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편 기혼 아들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자간의 애착과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유은희, 박성연(1989)의 연구에서는 모자간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결혼지속년수, 효도의무감, 모의 의존도 등의 변수들은 단지 모자간의 애착관계를 매개변수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자녀가 부모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애착 변수 또한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밖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애착이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현재 연애 중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는 남녀관계에서 나타내고 있는 애착유형은 그들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별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가족에서 성장하거나(Frommer & O'shea, 1973) 수용시설에서 자란 여성이 일반집단의 여성보다 결혼의 부

적응도가 높았으며(Ricks, 1985),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의 정도가 높은 성인자녀들이 결혼적응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eifma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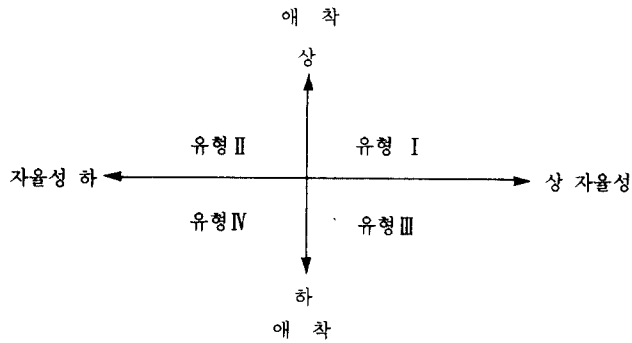
또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가족원간에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가족체계론자들은 부모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형태가 후일 자녀의 결혼생활에서도 반복되어짐으로써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결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Bowen, 1978) 이러한 가족체계론을 결혼만족도와 직접 연결시킨 경험적 연구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가족학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적응과 친, 인척관계의 적응이 관계가 있음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고, 고부갈등의 주된 원인이 자녀가족의 부모가족에 대한 자율성 증대 요구와 관련되어 나타남으로써 가족체계론의 적용 가능성이 한국가족에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애착 및 자율성 발달과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보다는 주로 청년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혼적응 보다는 일반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서구가족에서 자녀의 독립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가족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자녀의 결혼과 함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착과 자율성은 결혼초기에 있는 성인자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발달 형태는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결혼생활을 하는데 중요 변인이 될 수 있으며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발달되어 있는 것이 결혼생활에 보다 융통성있게 적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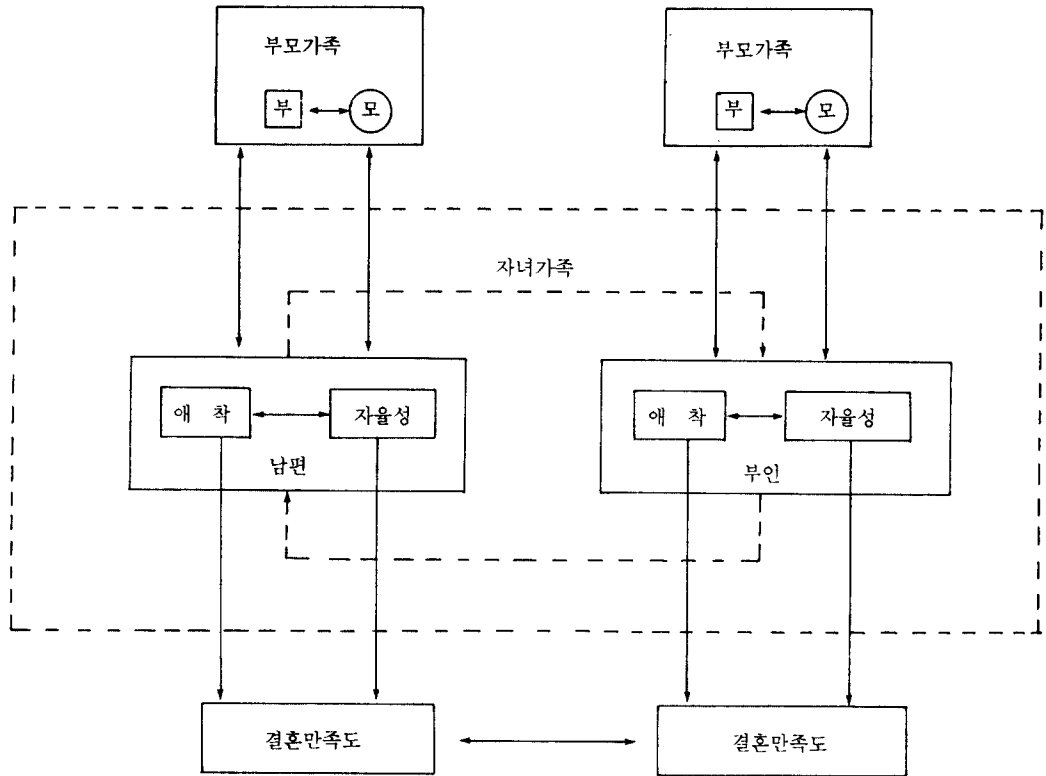
## Ⅲ. 연구의 모형과 연구문제

### A. 연구모형

앞에서 고찰해본 애착과 자율성 발달에 관한 가족체계론과 인간 발달이론을 연결시켜 구성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에 관한 가설적 모형



〈그림 2〉 성인-자녀 부모 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

B.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앞에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가설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결혼 초기에 있는 성인자녀들의 애착, 자율성 발달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애착, 자율성의 발달은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에 대해 애착을 보다 많이 나타낼 것이다.

가설 2-2: 남녀 모두 부모보다 모에게 애착을 보다 많이 나타낼 것이다.

가설 2-3: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에 대해 자율성을 보다 적게 나타낼 것이다.

가설 2-4: 남녀 모두 부모보다 부에 대해 자율성을 보다 많이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3) 애착, 자율성의 발달 유형은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애착, 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가설 3-2: 애착, 자율성의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부, 모에 대한 애착, 부, 모에 대한 자율성과 교육, 연령, 소득, 가족구조, 출생서열, 자녀유무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은 결혼만족도에 각기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 C.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1. 자율성이란 자신을 분리된 개체로서 지각하고 자아를 자기행동의 주제로 인지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이란 부모 가족과 자신이 이룬 가족과의 경계-분리 감각이 뚜렷하며,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가 적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아가 주체가 되고, 부모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2. 애착: 애착이란 안정감을 지속시키는 정서적 유대로서 특정인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선호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녀의 요구 및 정서상태에 민감히 반응하는 정도를 뜻한다.
3.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선호의 정도를 뜻한

다.

4. 부모가족: 자녀가 출생해서 성장한 가족을 뜻한다.
5. 자녀가족: 성인자녀가 결혼하여 세운 가족을 뜻한다.
6. 기혼자녀: 본 연구에서 기혼자녀란 결혼기간이 3년 이하가 되는 성인자녀를 뜻한다.

## IV. 연구방법

### A. 척도의 구성

#### 1. 애착 척도

애착 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애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애착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여러 문항을 수집하거나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문항들로 가척도를 구성하여 아동, 가족학 교수 3인에게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구하여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된 문항들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대부분의 문항과 상관관계가 유의적이지 못하거나 Cronbach의 alpha 계수에 의한 내적일치도 검증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들은 제거 또는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될 척도를 구성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 사용된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주성분 분석에 의해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5이상인 문항들만을 선택하였다.

셋째,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에 의해 검증하였고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애착은 부모의 반응성 및 근접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와 그 과정에서 경험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구성하였다. 애착척도의 일부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에서 발췌하여 성인기와 한국문화에 맞도록 수정 확대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본인에 의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자율성 척도

자율성 척도는 애착 척도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los(1979)이론을 기초로하여 자신의 가족과(family of procreation) 부모 가족(family of origin)의 분리감각, 부모에 대한 의존적 욕구의 감소, Greenberger(1984)의 자아주체성(self-reliance)개념을 근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아통제(self-control),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 등의 준거로 자율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vestadt 등(1985)의 FOS척도에서 두 문항\* 한국의 성인 자녀-부모관계에 맞게 수정 확대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문항들은 Frank 등(1988)과 Brendt(1983)의 임상적, 경험적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인이 작성하였다. 자율성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율성과 애착의 추정은 각 문항이 같은 정도로 기여한다는 가정 아래 Likert형 척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양극을 지닌 5점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또는 자율성 정도가 높게 하였다.

## 3.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의 결혼만족도 척도(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사용하였다. Roach 등의 MSS척도는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 우리나라 문화권의 적용에 있어서 타당도가 높음이 인정되었고(이인수, 1986), 척도의 신뢰성이 높으며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 개념과 일치되므로

본 연구에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관계의 문항이 많기 때문에 원래의 MSS척도 48문항을 모두 사용한다면 응답자의 반응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응답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SS척도를 보다 압축된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예비조사에서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대부분의 다른 문항과 상관관계가 유의적이지 못한 문항과 우리나라 문화권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문항들,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켰다. 둘째, MSS척도의 각 문항 점수와의 상관관계로 문항 변별지수를 구하여서 문항 판별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17개 문항으로 결혼만족도를 재구성하였다.

## B.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여러 집단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계수가 모두 .70이상이고 신뢰도 계수가 비슷한 척도들의 신뢰도가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타당도는 전공자들에 의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와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방법에 의해 검증하였다. 안면타당도는 가족학,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3명에게서 가척도에 대한 내용을 검증 받았다.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애착, 자율성, 결혼만족도 척도의 준거관련 변수로서 성에 따른 차이와 임상집단과 일반집

표 1.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척도	해당문항	일반 집단				임상집단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부	모
애착	1-3, 6-8, 12, 13, 17, 18, 21, 22, 24, 25, 28, 31	.933	.920	.933	.933	.955	.936
자율성	4, 14-16, 23, 29, 32-37	.822	.794	.801	.801	.792	.873
결혼만족도	1-17	.932				.942	

\*문항 4, 29가 FOS 척도에서 선택되었다.



단에 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애착, 자율성 발달유형의 분포에서 임상집단에서는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미발달되거나 불균형되게 발달한 유형이 많은데 비해 균형있게 발달된 유형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wis, 1982) 발달이론적 연구에서는 애착은 여성이, 자율성은 남성이 보다 많이 발달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의\* 분포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모와의 관계에서 예측했던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chisquare=9.97, df=3, p<.05).

애착, 자율성을 단일차원으로 놓고 성에 의한 차이가 검증에서도 애착( $t=2.82$  p<.01) 자율성( $t=6.43$ , p<.001) 모두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6).

결혼만족도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이 보고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남녀의 결혼만족도를 t 검증한 결과( $t=2.23$ , p<.05)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상집단은 이미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임상집단의 결혼만족도가 일반집단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들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예측한 방향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t=3.94$ , p<.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 자율성, 결혼만족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 되었다.

### C. 조사대상 및 조사 절차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결혼한지 3년 이하이며 부, 모 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생존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지속년수를 3년 이하로 한정 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과 함께 시작되며 결혼초기라고 볼 수 있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에 부모-자녀관계의 재조정 과업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1989년 12월 1일-12월 29일에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1,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1월 6일-18일에 실시하였고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조사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연고자를 통해 조사대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였다.

본 표본 조사를 위한 조사원은 아동,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가정관리학과의 대학생들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요령의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한후 1주일후에 회수해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본 조사에 사용된 척도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경정신과에 상담을 받고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E 병원, J 병원, C 병원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상집단에서는 표본을 단기간에 구하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이들은 이미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혼지속년수를 제한하지 않고 단지 부, 모가 생존하고 현재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런과정을 통해 배부된 설문지는 일반집단에서 700부, 임상집단에서 100부였고 이중 737부가 회부되었으며 내용이 부실한 19부를 제외하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임상집단 72부, 일반집단이 646부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 D.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위해 빈도 백분률 평균을 산출하였다. 애착, 자율성 발달형태의 유형화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인 결혼초기에 있는 성인자녀들의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을 파악하고자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률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인 애착, 자율성 발달의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Repeated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적용하였다.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의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chisquare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3인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

\*애착, 자율성 발달유형의 가설적 연구모형 참고

	구분	N = 646 (%)
성 (sex)	남 성	315 (48.8)
	여 성	331 (51.2)
*연령	20 - 27세	246 (38.1)
	28 - 32세	345 (53.4)
	33 - 38세	49 ( 7.6)
	무 응 답	6 ( 0.9)
자녀유무	유	328 (50.8)
	무	318 (49.2)
가족구조	핵 가족	513 (79.4)
	확대가족	133 (20.6)
결혼지속년수	1년 미만	271 (42.0)
	1년 - 2년 미만	186 (28.8)
	2년 - 3년	189 (29.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 ( 2.0)
	고 졸	139 (21.5)
	대학중퇴, 전문대	61 ( 9.4)
	대학졸업	350 (54.2)
	대학원 이상	83 (12.8)
*소득수준	40만원 이하	61 ( 9.4)
	41 - 80만원	319 (49.4)
	81 - 120만원	177 (27.4)
	120만원 이상	72 (11.2)
	무 응 답	17 ( 2.6)
출생서열	말이	222 (34.4)
	지차	294 (45.5)
	막내	130 (20.1)
부모의 생존상태	부만 생존	22 ( 3.4)
	모만 생존	112 (17.3)
	부, 모, 모두 생존	512 (79.3)
부의 연령	50세 이하	16 ( 2.5)
	51 - 60세	302 (46.7)
	61세 이상	193 (29.9)
	부가 사망함	112 (17.3)
	무 응 답	23 ( 3.6)
모의 연령	50세 이상	79 (12.2)
	51 - 60세	407 (63.0)
	61세 이상	130 (20.2)
	모가 사망함	22 ( 3.4)
	무 응 답	8 ( 1.2)

\* 연령의 구분은 Levinson(1978)의 인성구조 구분에 의해서 하였다. Levinson은 성인 초기를 성인기 시작(22-28세), 30세 과도기(28-33세), 정착기(33-40세)로 구분하였다.

\*\* 소득수준의 구분은 Z분포를 이용하여 4등분하였다. (평균 = 83.41, SD = 42.85)

으로 Duncan의 중다범위검정 방법(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관계의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이원변량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4인 부, 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과 인구학적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각기 어떻게 영향을 주고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AS PC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 V. 분석결과 및 논의

### A. 분석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초기에 있는 성인자녀의 애착, 자율성 발달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애착, 자율성의 발달은 상호관련되어 있지만 단일차원이 아닌 두개의 차원으로 각기 발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자율성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하여 4가지의 발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기준보다 높으면 균형된 유형(I: 친밀하면서도 독립적임), 애착은 기준보다 높으나 자율성은 기준보다 낮으면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II: 친밀하나 의존적임), 애착은 기준보다 낮으나 자율성은 기준보다 높으면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III: 소원하나 독립적임), 애착과 자율성 모두 기준보다 낮으면 미발달된 유형(IV: 소원하면서도 의존적임)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은 유형 분류법에 의한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의 분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분포 상태를 보였다. 즉, 친밀하나 의존적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부: 31.3%, 모: 30.8%) 그 다음으로 소원하나 독립적인 유형(부: 29.8%, 모: 27.4%), 친밀하면서도 독립적인 유형(부: 20.6%, 모: 23.1%), 소원하면서도 의존적인 유형(부: 18.3%, 모: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밀하면서도 독립적인 유형은 부와

의 관계(20.6%)서 보다 모와의 관계(23.1%)에서 약간 더 많은데 비해 소원하나 독립적인 유형은 모와의 관계(27.4%)에서 보다 부와의 관계(29.8%)에서 약간 더 많았다.

부모-자녀관계의 정서적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표 3.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의 평균과 사례수

발달유형	애착, 자율성의 정도	부	모
		N (%)	N (%)
I 균형된 유형	애착 상 자율성 상	110 (20.6)	144 (23.1)
II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애착 상 자율성 하	167 (31.3)	192 (30.8)
II-I 불안정하게 독립인 유형	애착 하 자율성 상	158 (29.8)	171 (27.4)
I-V 미발달된 유형	애착 하 자율성 하	98 (18.3)	117 (18.7)
합계		534 (100.0)	624 (100.0)

\* 애착, 자율성 발달유형의 기준은 애착의 평균(부:3.50, 모:3.87)과 자율성의 평균(부:3.49, 모:3.39)으로 하였다.

방법으로서 제시된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 분류법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부, 모에 대한 판별 분석을 하였다. 애착, 자율성의 두 변수로 4유형을

분류하는 판별식의 효용성을 Wilks' lambda 검증한 결과 부와의 관계(wilks lambda=.14, F=296.10, df=3/533, p<.01), 모와의 관계(wilks lambda=.16, F=303.89, df=3/623, p<.01)에서 유의적이었다. 이들 4가지 판별함수들의 분류력을 조사한 결과 잘못 분류된 비율이 부의 경우 5%, 모의 경우 17%로 위에서 제시된 판별식은 83%-95%의 높은 판별력을 보였다. 또 임상집단에서 cross validation을 검증한 결과 잘못 분류된 비율이 13.5%로 역시 높은 판별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에 의한 부모 자녀간의 정서적 관계의 유형 분류법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본다.

[연구문제 2] 애착, 자율성의 발달은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2\*2(자녀의 성\*부모의 성)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한 결과 애착의 경우 자녀의 성은 (F=.80, df=1/510 p>.05)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의 성과(F=154.53, df=1/510, p<.001), 부모의 성\*자녀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F=7.03, df=1/510, p<.01)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4). 상호작용 효과를 유의적으로 나타내게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위해 부, 모에 대한 애착을 각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모와의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애착 정도가 높았다(표 6).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애착이 보다 많았으며 이런 차이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가장

표 4. 자녀의 성과 부모의 성에 따른 애착 자율성의 Repeated ANOVA 분석

	애착			자율성	
	df	MS	F	MS	F
자녀의 성 (A)	1	.502	.80	8.09	16.53 ***
집단간 오차	510	.624		.489	
부모의 성 (B)	1	43.69	154.53 ***	3.61	22.79 ***
A * B	1	1.99	7.03 **	4.36	27.51 ***
집단내 오차	510	.283		.159	

\*\*\* P < .001 \*\* P < .01

주 : 본 자료 분석에서는 부가 생존하지 않은 사례가 112명이고 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가 22명이어서 부 또는 모에 대한 무응답으로 처리된 134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512사례만이 Repeated ANOVA 분석에 사용된다.

켰다. 그러므로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자율성에서는 자녀의 성( $F=16.53, df=1/510, p<.001$ ), 부모의 성( $F=22.79, df=1/510, p<.001$ ), 자녀의 성\*부모의 성의 상호작용( $F=4.36, df=1/510, p<.001$ )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그들의 부모에 대해 자율성을 보다 많이 경험하였으며 부와의 관계가 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자율성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런 차이는 특히 모녀 관계에서 크게 나타나 딸이 어머니에 대해 경험하는 자율성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가설 2-3, 2-4는 지지되었다(표 4, 표 5).

[연구문제 3] 애착-자율성의 발달 유형은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변량분석에 의해 검증한 결과 부와의 관계( $F=20.34, df=3, p=.0001$ ), 모와의 관계( $F=30.66, df=3, p=.0001$ ) 모두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예측했던대로 애착-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된 유형(I)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중다범위 검정(multiple range test)을 적용한 결과 부, 모와의 관계 모두에서 애착이 발달된 유형과 애착이 미발달된 유형,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미발달된 유형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9).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표 5. 애착, 자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		자율성	
	부	모	부	모
남	3.53 (.684)	3.79 (.657)	3.52 (.564)	3.54 (.537)
여	3.47 (.714)	3.94 (.646)	3.47 (.544)	3.24 (.633)
합계	3.50 (.700)	3.87 (.655)	3.49 (.547)	3.39 (.592)

\* ( )는 표준편차임

<표 6> 부-모에 대한 남녀의 애착, 자율성의 차이

특성	부			모			
	남	여	t(n=534) #	남	여	t(n=624) #	
애착							
M	3.53	3.47	.375	3.79	3.94	2.82	**
SD	0.68	0.71		0.66	0.65		
자율성							
M	3.52	3.47	.236	3.54	3.24	6.42	***
SD	0.56			0.54	0.61		

\* 부모에 대한 응답은 생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만 하였기 때문에 부에 대한 응답은 534사례, 모에 대한 응답은 624사례만이 t검증에서 분석되었다.

\*\*  $P < .01$  \*\*\*  $P < .001$

<표 7> 애착-자율성 발달유형의 차이(부와의 관계)

발달유형 집단	I	II	III	IV	합계
남	22.27 (55)	30.77 (76)	28.74 (71)	18.22 (45)	100.0% (247)
여	19.16 (55)	31.71 (91)	30.66 (88)	18.47 (53)	100.0% (287)
합계	20.60 (110)	31.27 (167)	29.78 (159)	18.35 (98)	100.0% (534)

chi square = .826, df = 3,  $p>.05$

〈표 8〉 애착-자율성 발달유형의 차이(모와의 관계)

발달유형	I	II	III	IV	합 계
집단					
남	25.08 (77)	29.32 (90)	24.76 (76)	20.85 (64)	100.0% (307)
여	21.64 (67)	32.16 (102)	29.97 (95)	16.72 (53)	100.0% (317)
합 계	23.08 (144)	30.77 (192)	27.40 (171)	18.75 (117)	100.0% (624)

chi square = 4.43, df = 3, p>.05

〈표 9〉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발달유형	부				모			
	빈 도	평 균	F검증	Duncan's	빈 도	평 균	F 검증	Duncan's
I	110	4.16	***	A	144	4.19	***	A
II	167	4.15	20.34	A	192	4.13	30.66	A
III	159	3.87		B	171	3.77		B
IV	98	3.65		C	117	3.64		C

\*\*\* P < .001

\* I = 균형되게 발달한 유형, II = 불안정하게 친밀한 유형,  
III = 불안정하게 독립적인 유형, IV = 미발달된 유형

〈표 10〉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과 자녀의 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차이

구 분	부			모		
	DF	MS	F	DF	MS	F
발달유형(A)	3	7.00	20.50 ***	3	10.57	31.13 ***
자녀의 성(B)	1	2.41	7.06 **	1	1.97	5.80 *
A * B	3	.126	.37	3	.86	2.53
오차	526	.341		616		

\*\*\* P < .001 \*\* P < .01 P < .05

또한 부, 모로부터의 분리과정에서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자녀의 애착, 자율성 발달이 결혼만족에 주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어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자녀의 성\*발달 유형의 이원변량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성과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의 상호 작용 효과는 없었다(표 10).

[연구문제 4] 부에 대한 애착, 모에 대한 애착, 부에 대한 자율성, 모에 대한 자율성과 소득, 교육, 가

족구조, 출생서열, 연령, 자녀유무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은 결혼만족도에 어떻게 각기 기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성인 자녀의 성별로 각각 적용하였다. 이들 변인 중 가족구조, 출생서열, 자녀유무는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 적용에서 변인간의 다중공선성(multi

\* 연구모형에서 명목변인은 가변수 처리하였다.

가족구조: 핵가족=0, 확대가족=1

출생서열: 맏이=0, 지차, 막내=1

자녀유무: 자녀없음=0, 자녀있음=1

〈표 11〉 결혼만족도에 대한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계수표

주요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父에 대한 애착	.50*** (.27)***											
2. 母에 대한 애착												
3. 父에 대한 자용성												
4. 母에 대한 자용성												
5. 교 육												
6. 소 득												
7. 연 령												
8. 자 유												
9. 가 족 조												
10. 출 생 일												
11. 결 혼 만 족												
평 균	3.79 (3.94)	3.79 (3.47)	3.52 (3.47)	3.54 (3.24)	4.79 (4.33)	84.4 (83.7)	27.7 (27.0)	492 (50)	.19 (.18)	.65 (.63)	4.06 (3.93)	
표준편차	.66 (.65)	.56 (.54)	.54 (.54)	.54 (.61)	.95 (1.1)	43.6 (42.1)	2.56 (2.46)	.50 (.50)	.39 (.38)	.59 (.63)	.59 (.63)	

\*\*\* P < .001, \*\* P < .01, \* P < .05

a) 가변수 처리한 것임.

( ) 안의 숫자는 여성의 경우임.

〈표 12〉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회귀식 I	회귀식II	회귀식III
교육	.07 (.12) *		.07 (.11)
소득	.00 (.07)		.00 (.02)
연령	-.02 (-.07)		-.01 (-.06)
가족구조a)	-.04 (-.03)		.00 (.00)
출생서열a)	.20 (.15) **		.09
자녀유무a)	-.12 (-.10)		-.11 (-.09)
부에 대한 애착		.22 (.26) ***	.21 (.25) ***
모에 대한 애착		.33 (.37) ***	.33 (.36) ***
부에 대한 자율성		.26 (.25) **	.25 (.23) **
모에 대한 자율성		-.05 (-.05)	-.04 (-.03)
상수	3.40	1.29	1.36
R <sup>2</sup>	.07	.28	.32

\* P < .05, \*\* P < .01, \*\*\* P < .001

a) 가변수 처리한것임.

〈표 13〉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회귀식 I	회귀식II	회귀식III
교육	.10 (.18) **		.10 (.17) **
소득	.00 (.13) *		.00 (.06)
연령	-.00 (-.01)		.01 (.05)
가족구조 a)	-.06 (-.04)		-.04 (-.02)
출생서열 a)	.19 (.15) **		.14 (.11)
자녀유무 a)	-.19 (-.15) **		
부에 대한 애착		.29 (.33)	.23 (.26) ***
모에 대한 애착		.18 (.18) **	.20 (.20) **
부에 대한 자율성		.15 (.13)	.15 (.13)
모에 대한 자율성		-.06 (-.06)	-.04 (-.04)
상수	3.38	1.84	1.09
R <sup>2</sup>	.11	.16	.22

\* P < .05, \*\* P < .01, \*\*\* P < .001

( ) 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a) 가변수 처리한것임.

collinial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어슨 적률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아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표 11). 회귀분석 결과 표 12, 표 13에서 처럼 남성의 경우 모에 대한 자율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부에 대한 애착, 모에 대한 애착, 부에 대한 자율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부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부에 대한 애착, 모에 대한 애착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에 대한 자율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모에 대한 자율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거의 영향력을 주지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경우는 모에 대한 애착이(beta=.37)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부에 대한 애착이(beta=.29)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

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보면 인구학적 변인들(남:7%, 여:11%)보다 부, 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변수들(남:28%, 여:16%)의 설명력이 보다 많음을 나타냈고, 부, 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변수들의 설명력은 남성이(28.2%) 여성(16%)보다 많았다.

## 논 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초기에 있는 성인자녀들은 부, 모에 대한 자율성 보다는 애착을 보다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애착, 자율성 발달 유형의 분포에서도 부, 모 모두에서 친밀하나 의존적 유형과 소원하나 독립적인 유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있게 발달된 유형은 전체의 사분의 일에도 못미치고 있었다. 이는 성숙되고 기능적인 성인자녀-부모관계는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발달되어있는 관계로 주장하고 있는 발달이론과 가족체계론을 통해볼 때 대부분의 한국가족에서 자녀의 결혼과 함께 부모 가족과 자녀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애착을 보다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모와의 관계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애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부와의 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남성의 애착정도가 보다 더 높았다. 이는 Frank 등(1988)과 Leo(1988)의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 모 모두에게서 정서적 유대 정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불일치된다.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서구가족에 비해 성역할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가족에서 기혼 아들과 아버지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기혼 딸과 어머니는 가정적 역할이라는 동일한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부자관계, 모녀관계에서 감정이입과 상호이해를 증대시키게 되고 그 결과 부자관계와 모녀관계에서 애착이 보다 증대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애착 정도가 모와의 관계에서만 남녀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애착을 여성성과 자율성을 남성성과 관련짓는 이론

을 통해 볼때 딸의 여성성 발달과 가정적 역할 참여로 인한 모녀간의 감정이입 증대가 모녀간의 애착 정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반면에 부와의 관계에서는 딸은 여성성 발달로 아들은 부와 동일한 사회경제적 역할 참여로 인한 감정이입과 이해의 증대와 관련되어 애착을 발달시키고 있어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애착정도가 부모보다 모에게서 보다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가족은 모에게서 심리적 안정을 구하며, 부모보다 모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율성은 예측했던대로 부와의 관계에서가 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율성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아 가설 2-3, 가설 2-4는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는 자율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다 많이 요구되고 모보다 부에게서 보다 강조되어짐을 반영한다고 본다. 또한 자율성의 발달에서도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모와의 관계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자율성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즉, 여성 대 여성의 관계인 모녀관계에서 애착은 많이 강조되고 있으나 자율성은 발달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있지못한 것으로 본다.

한편 애착에서 자녀의 성에 의한 차이가 없으며 부와의 관계에서 남성의 자율성이 여성의 자율성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음은 자녀의 애착, 자율성 발달에 성역할 구조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런 현상은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의 분포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남성은 자율성이 발달되고 애착에 불안하며 여성은 애착은 발달되나 자율성에 불안하다는 Chodorow의 이론에 의하면 남성에게서는 소원하나 독립적인 유형이, 여성에게서는 친밀하나 의존적인 유형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에 의한 차이가 없으며 부, 모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친밀하나 의존적인 유형이 가장 많았다. 애착의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애착 그 자체는 보편적 현상이나 애착유형의 발달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Grossman et al, 1985)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족주의특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부부중심적인



서구가족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중요하며 가족관계도 성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과 보다 많이 관련되어 발달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계계승과 가족집단적 특성이 많은 한국가족에서 부자관계는 단지 남성 대 남성의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동일 가문을 영속시켜 나가는 주체가 되는 관계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부자관계에 대한 이러한 의식은 부자간에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아들이 결혼하여도 아들 개인의 독립성 보다는 동일 가문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혼아들의 부에 대한 자율성 발달이 억압될 수 있다는 데 기인된다고 본다. 이런 가능성은 복종을 강조하는 효사상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효사상이 애착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를(유은희, 박성성연, 1989) 보이고 있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셋째,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예측했던대로 애착, 자율성이 모두 균형되게 발달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두 변수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 3-2는 지지되지 못하였으며, 사후검증에서도 애착, 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된 유형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애착, 자율성이 미발달된 유형에서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음은 애착, 자율성이 모두 발달되는 것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달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애착-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사후검증에서 애착, 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한 유형(I유형)과 친밀하나 의존적인 유형(II유형) 유의적인 차이가 없지만 소원하나 독립적인 유형(III유형)에서는 결혼만족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옴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복종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전통적 효사상이 남아있는 한국가족에서 III유형보다는 II유형이 보다 기능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넷째, 성인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 모의 애착, 자율성의 회귀분석에서 부, 모에 대한 애착이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애착은 정서적 안정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의 적응력을 높이며, 애착의 기능은 전생애적으로 작용한다는 Bowlby 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에게서는 모에 대한 애착이, 여성에게서는 부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있는데 이는 이성부모에게서 경험되었던 애착관계의 내적표상이 후일 배우자와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에 대한 자율성은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주고, 여성의 경우도 유의적이진 않지만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모에 대한 자율성은 거의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함은 자아개념, 자이통제의 발달을 지원받고 확인받는 주된 근원은 부와의 관계이며(Shannon, 1987) 모는 정서적 유대 관계의 주축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에 대한 자율성은 자녀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남성의 결혼만족도에서는 부에 대한 자율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여성의 결혼만족도에서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였다. 이는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한 유형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연계시켜 볼 때 성역할 구조가 분리되어있는 한국가족에서 여성은 주로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부의 자율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보다는 적지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여성 보다 남성에게서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계적 가족제도를 이루고 있는 한국가족에서 남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가족에 보다 많이 관여하고 있음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구학적 변인들과 부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변수들을 결혼만족도에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부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변수들의 설명력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의 인구학적 조건들 보다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관계가 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 결혼초기의 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구조화하는데 어느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원간의 애착, 자율성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 성인자녀-부모간의 애착, 자율성 관계는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넷째, 자녀가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가족발달 단계에서 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친밀하면서도 자기 가족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독립된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개인주의, 평등적 가치관으로 지향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서 자녀의 복종과 부모의 부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전통적 효도의 무감에 의해 부모 자녀관계를 정립하려는 태도나 개인주의 사상과 부부중심적 태도에 의해 자녀의 독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부모 자녀간의 관심과 배려를 지나치게 배격하는 태도는 부모자녀 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초기의 성인자녀-부모 관계와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실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족치료에서의 가족체계론과 애착, 자율성에 관한 인간발달이론을 가족학과 통합하여 가족관계 연구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성인자녀-부모관계의 정서적 특성과 결혼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구의 핵가족과는 달리 가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한국가족에서의 결혼적응과 고부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결과를 보다 확대하고,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다른 사회계층, 연령, 민족)들을 대상으로한 복제(replication)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인자녀-부모 관계와 결혼생활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애착, 자율성이라는 부모 자녀간의 정서적 관계외에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적 측면 즉, 경제적 또는 서비스 등의 상호의존성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고정자(1988),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4호, pp.129-60.
- 2)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이화출판부.
- 3) 박성연(1988), "모의 결혼관계와 모-기혼자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 논총, 제54(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211-33.
- 4) 유은희,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pp.149-62.
- 5) 윤승경(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6) 이인수(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Roach, et al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7) 이정우(1973), "대도시 중류가정의 가족관계:양친가정과 아들부부 가정간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7, pp.105-19.
- 8) 최규련(1987), "한국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9) Ainsworth, M.D.S.(1979), "Attachment:Retrospect and Prospect", *The Placement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eds. C.M. Parks and J.S. Hinde, New YORK:Basic Books, pp. 3-30.
- 10) Armsden, G.C. and M.T.Greenberg(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ndivi-

- 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No.5, pp.427-53.
- 11)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12) Bowen, M.(1978), *Family therapy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13)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14) Branden, N.(1983), *Honoring the Self: personal integrity*, Los Angeles: Jermy p. Tracher inc.
  - 15) Bray, J.H., D.S. Williamson, and P.E. Malone (1986), "An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consultation process to increase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Family Process*, 25, pp.423-36.
  - 16) Campbell, E., G.R. Adams, and W.R. Dobson (1984), "Family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No. 6, pp.509-25.
  - 17)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8) Douvan, E. and J. Adelson(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19) Duvall, E.M.(1978),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 B. Lippincot Co.
  - 20) Erikson, 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21) Frank, S., C. Avery, and M. Laman(1988), "Youth Adul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No. 5, pp.729-37.
  - 22) Fischer, L. R.(1981), "Transition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613-22.
  - 23) Greenberger, E.(1984), "Defining Psychosocial Maturity in Adolescence", *Adolescent Behavior Disorders: Foundations and Contemporary Concerns*, eds. P. Karoly and J. Steffen, Lexington: Heath, pp. 54-81.
  - 24) Greenberg, M., J. Siejel, and C. Leitch(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pp. No. 5, pp. 373-85.
  - 25) Grotevant, H.D.(1983), "The Contribution of the Family to the Facilitation of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pp. 225-37.
  - 26) Haworth, L.(1986), *Autonomy: An Essay in Philosophical Psychology and Ethics*, Yale.
  - 27) Hazan, C. and P. Shaver(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No. 3, pp. 511-24.
  - 28) Hill, J. and G. Holmbeck(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Annals of Child Development*, 3, pp.145-89.
  - 29) Hovestad, A., W. Anderson, F. Piercy, S. Cochran, and M. Fine(1985),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No.3, pp.287-97.
  - 30) Hoffman, J.(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 pp.170-78.
  - 31) Kenny, M.(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No. 1, pp.17-29
  - 32) Kroger, J.(1981),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Newzeal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No. 2, pp.133-47.
  - 33) Lee, S.(1987), "Marital Adjustment process of Korean working class couple", Iow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34) Lewis, J.(1986), "Family Structure and Stress", *Family Process*, 25, pp.235-47.
  - 35) Lurie, E.(1974), "Sex and Stage Difference in

- Perceptions of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pp.260-69.
- 36) Marcia, J.(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ed. J. Adelson, New York:Wiley, pp. 159-87.
- 37)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38) Moore, D.(1987), "Parent-Adolescents in Conflicts: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of Families Most of the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No.2, pp.298-307.
- 39) Pipe, S. and R. Harmon(1987), "Attachment as Regulation:A Commentary", *Child Development*, 58, pp.648-52.
- 40) Ricks, M.(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eds. I.Bretherton and E. Waters(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209, 50, No.1-2).
- 41) Reifman, A.(1986), "Emotional Cut 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42) Roach, A., L.Frazier, and S. Bowden(1980),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537-46.
- 43) Shannon, J.(1987), "Father-Daughter Relationships:Exploring Their Implications for the Leaving Home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44) Steinberg, L.(1985), "The ABCs of Transformations in the Family at Adolescence:Changes in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Eds. E. Hetherington and R. Parke,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New York:McGrawhill.
- 45) Steinberg, L. and S. Silverberg(1986), "The Vic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pp.841-51.
- 46) Sullivan, K. and A. Sullivan(1984),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No.2, pp.93-99.
- 47) Troll, L. and J. Smith(1976), "Attachment through the Life Span:Some Questions about Dyadic Bonds among Adults", *Human Development*, 19, 156-70.
- 48) White, K., J. Speisman, and D. Costos(1983),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Individuation to Mutuality",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eds. H. Groteavnt and C.Cooper, San Francisco: Jossey-bass, pp.61-76.
- 49) Wynne, L.(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 No.3.